

3/14/21

설교 제목: 요셉의 이어지는 테스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44 장 1-34 절

- (창 44:1)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 (창 44: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 (창 44: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 (창 44: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 (창 44: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 (창 44: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 (창 44: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 (창 44: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절관주** 창 43:21
- (창 44:9)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절관주** 창 31:32
- (창 44: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 (창 44: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 (창 44: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 (창 44: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을 청하다

- (창 44: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 (창 44: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절관주** 창 44:5
- (창 44: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 (창 44: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 (창 44: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 (창 44: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 (창 44: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 (창 44: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절관주** 창 42:15
- (창 44: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 (창 44: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 (창 44: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 (창 44: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 (창 44: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절관주** 창 43:3

- (창 44: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절관주** 창 35:24
- (창 44: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절관주** 창 37:33
- (창 44: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절관주** 창 42:38
- (창 44: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 (창 44: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 (창 44: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 (창 44: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 (창 44: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시기 질투하여 은 20 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20 여년 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그들을 테스트해 보기 원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말째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하여 베냐민이 홀로 애굽에 종으로 남기워져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형들의 태도를 지켜 봅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그들의 우애와 책임감을 시험해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모든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 (창 44:1)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 (창 44: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 (창 44: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 (창 44: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 (창 44: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 (창 44: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 (창 44: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 (창 44: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 (창 44:9)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 (창 44: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 (창 44: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 (창 44: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 (창 44: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결국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결백을 증명하고자 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는 것은 진정으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모두들 같이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고 네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앞장서서 자신들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창 44: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창 44: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창 44: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은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에 요셉은 죄를 지은 베냐민 하나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창 44: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창 44: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창 44: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창 44: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창 44: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창 44: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창 44: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 (창 44: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 (창 44: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 (창 44: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 (창 44: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 (창 44: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 (창 44: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 (창 44: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 (창 44: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말째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기에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지라 만약 그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큰 슬픔 가운데 죽게 되니 자신들이 다 함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20 여년 전 그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자식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 그를 죽이려다 은 20 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의 나이 17 세였으니 당시 형들의 나이도 기껏해야 10 대 말에서 20 대 중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0 여년의 세월이 흘러 모두들 처자식들을 거느린 40 대 가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이 들었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다는 그동안 아내와 두 아들들을 잃고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차마 그 하나 남은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줄 수가 없어 다말에게 큰 잘못을 범하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미와 형제를 잃고 혼자 남은 막내 셀라를 사랑했던 자신과 어미를 잃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던 야곱이 무엇이 다른니까?

그러기에 그런 아버지 야곱과 자신이 동일시 되어 자신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창 44: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창 44: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창 44: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 넘긴 자신이 이번에 또 베냐민을 애굽에 종으로 내줌으로써 아버지의 가슴에 두 번씩이나 대못을 박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요셉의 가슴은 감동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와하지 않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 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금붙이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출 32:31)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출 32: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유다의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위기 상황에 놓인 야곱 가를 살렸듯이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유다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